

대구·경북 손잡고 수출판로 개척 올해 8개 해외박람회 공동관 구성

대구시와 경북도가 해외 박람회에 '대구·경북공동관'을 구성해 참가한다.

시와 도는 디트로이트자동차부품 박람회, 하노버 산업박람회, 프리미어 비종, 파리자동차부품박람회 등 8개 해외 박람회에 공동전시관을 꾸려 수출판로 공동 개척에 나서 시너지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.

대구시의 경우 올해 국제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억 9천만 원보다

65% 증액한 8억 1천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.

시는 지난해까지는 수출 300만 달러 이하 업체만 박람회 참가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부스료의 50% 범위 내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.

참가희망업체는 2월 28일까지 미리 접수해야 한다. 대구시 기업지원본부 국제통상팀 053)803-3291.

이춘수기자 zapper@msnet.co.kr

대구·경북 공동참가 박람회

박람회	기간(일)	장소	업체	추진기관
스페인세계일류상품전	2. 13~16	마드리드(스)	5	KOTRA
디트로이트자동차부품박람회	4. 16~19	디트로이트(미)	5	KOTRA
하노버산업박람회(산업기계)	4. 16~20	하노버(독)	10	무역협회
시카고식품기술박람회	7. 28~30	시카고(미)	5	무역협회
프리미어 비종	9. 19~22	파리(프)	5	KOTRA
부르노국제엔지니어링박람회	10. 1~5	부르노(체코)	5	
무역협회상해기계박람회	10. 10~13	상해(중)	10	무역협회
파리자동차부품박람회	10. 15~20	파리(프)	5	KOTRA